

제조업 매출 3% ↓ ... 2년째 마이너스 성장

지난해 기업 매출 증가율 0.3%... 6년래 최저 수익으로 이자 못 갚은 부실기업 8만6천여개

지난해 우리나라 제조업의 매출액이 3%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의 성장엔진인 제조업의 매출이 2년 연속 뒷걸음질하면서 저성장을 둘러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또 기업들의 수익성과 안정성은 개선됐지만, 빛이 있는 기업의 3분의 1은 여전히 수익으로 이자를 갚지 못할 정도로 부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15년 기업 경영분석'에 따르면 국내 비금융 영리법인기업 57만485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기업 매출액 증가율은 0.3%로 전년도(1.3%)보다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09년 전수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저 수준이다.

◇매출액증가율 0.3%로 '뚝'...제조업 부문 대기업은 4.7% ↓ =특히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축인 제조업과 대기업의 매

출액 증가율의 감소폭이 더 확대됐다. 제조업 매출액 증가율은 지난 2014년 -1.6%에서 지난해 -3.0%로 급락했다. 비제조업 역시 매출액 증가율이 4.1%에서 3.4%로 둔화했다.

국제유가가 떨어지면서 원유 등의 원자재 가격 영향을 많이 받는 석유화학(-15.2%)과 금속제품(-6.8%), 전기가스(-10.8%) 등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다.

제조업의 부진에 대기업의 매출액 증가율도 -0.4%에서 -4.7%로 하락폭이 더 커졌다. 반면 중소기업은 매출액 증가율이 전년도 4.4%에서 8.0%로 성장했다. 다만 매출 성장세는 떨어진 반면 기업의 수익성은 좋아졌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7%로 전년도(4.0%)보다 확대됐다. 매출액 세전순이익률도 같은기간 3.



3%에서 4.4%로 상승했다.

◇빚 있는 기업 중 26.6%가 영업적자...조선업 부채비율 급등=문제는 지난해 기업들의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353.3%로 2014년(284.5%)에 비해 68.8%포인트 급등했다. 이자보상비율은 영업활동으로 창출한 수익으로 이자 등 금융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그러나 수익으로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하는 기업이 여전히 많았다.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 비중은 지난해 31.5%로 2014년(32.1%)보다 0.6%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다.

이자보상비율 통계에는 차입금과 회사채 잔액이 없거나 이자비용이 '0'인 기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제외한 27만5260개 기업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약 8만6700개 기업은 이자를 갚을 수 없는 수익도 내지 못한 것이다.

또 이자보상비율이 0% 미만 기업의 비중은 2014년 26.5%에서 지난해 26.6%로 커졌다. 약 7만3000개 기업이 영업적자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최근 지역 사업체(550개)를 대상으로 기업경기를 조사한 결과, 10월 제조업 업황 BSI(기업경기실사지수)와 11월 업황 전망 BSI가 각각 77과 79를 기록하며 지역 제조업체들은 기업경기를 여전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저축은행도 집단대출 옥죄기

금융당국 리스크관리... 분양시장 혼란 우려

시중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 저축은행의 집단대출도 사실상 막혔다. 이에 따라 주택 실수요자들이 아파트 중도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충을 겪는 등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20여명의 저축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저축은행중앙회 회의에서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집단대출 리스크 관리를 하라'는 취지의 전달문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 "저축은행의 집단대출 취급을 금지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저축은행들은 사실상 집단대출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게 중도금대출 규제에 나선 것은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규모는 지난해 12월 14조1500억원 수준에서 올 7월 17조1900억원까지 20% 이상 급증했다. 이는 은행권이 올 들어 여신심사 가이

대출 수요가 일부 저축은행으로 옮겨왔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는 집단대출도 저축은행으로 옮겨오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저축은행의 집단대출마저 앞으로 중단될 것으로 보이면서 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개인이 신용이나 담보대출을 통해 수익원의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이자 부담과 대출 승인 등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건설사가 중도금을 잔금으로 미뤄주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건설사들은 중도금을 건설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도금을 미뤄주면 대규모 차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2금융권의 집단대출 규제 여파로 분양시장의 혼란도 우려된다.

지역 아파트 분양업체 한 관계자는 "2금융권 집단대출까지 막히면 주택 실수요자조차 분양시장에 남기 어려워진다"며 "사업을 조정하려는 시행사들이 발생할 것이고 주택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성기자bigkim@

맥주값 오른다

오비맥주 다음달 출고가 6% ↑

국내 맥주업계 1위인 오비맥주가 카스 등 주요 맥주 제품의 출고가를 다음 달 1일부터 평균 6% 인상한다.

맥주값 인상은 2012년 8월 이후 약 4년 3개월 만이다. 오비맥주는 다음 달 1일부터 카스, 프리미어OB, 카프리 등 주요 맥주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6% 인상하기로 하고 최근 이런 방침을 주류 도매상과 대형마트 등 전국 거래처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표 제품인 카스 병맥주의 경우 500ml 기준으로 출고가가 기존 1081.99원에서 1147.00원으로 65.01원(6.01%) 오르게 된다.

전체 맥주시장의 약 60%를 점유하는 오비맥주가 맥주값을 인상함에 따라 하이트드진로와 롯데주류 등 다른 맥주 업체들도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지난 29일 광주시 동구 구시청 사거리 일대에서 열린 '2016 부기부라더할로윈 페스티벌'에서 시민들이 디제잉공연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보혜양주 제공)

구시청의 밤 달군 '보해 할로윈페스티벌'

인디밴드·댄스 공연 등 다채

보혜양주(대표이사 임지선)가 할로윈데이를 맞아 지역 젊은이들과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2016부기부라더할로윈페스티벌'을 지난 29일 저녁 광주시 동구 구시청 사거리 일대에서 개최했다.

'2016 부기부라더할로윈 페스티벌'은 오후 4시부터 밤 11시까지 할로윈 컨셉의 디제잉공연, 인디밴드공연, 댄스공연

등 다채롭게 펼쳐졌으며, 구시청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페스티벌을 즐길 수 있게 할로윈 코스튬(분장)을 위한 마이크업 부스를 마련해 직접 분장을 하고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더 큰 호응을 얻었다.

함께 온 코미디언 김기욱씨는인디밴드공연대회MC를 맡아 축제를 즐기는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였고, 인디밴드 공연대회 참가 11개 팀 중 1등 이서훈씨, 2등 서준호, 김민업, 강주광씨, 3등 김수빈씨는 각각 상금 1백만원과

40만원 20만원등 보혜양주에서 상금을 지급하였다.

임지선 보혜양주 대표이사는 "작년 에 첫 할로윈데이 행사를 통해 지역민들이 함께 즐기고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의 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보혜양주는 앞으로도 지역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와 문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설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

한전 '사랑의 에너지 나눔'

전기요금 체납 취약계층 지원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전기요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2016년 하반기 사랑의 에너지나눔' 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한전은 2003년부터 14년째 연 2회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직원이 기부한 금액과 회사 지원금을 모아 어려운 이웃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1억 5000만원 포함, 지금까지 전국 2만여 가

구에 27억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순수 주거용 전기사용 고객으로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체납한 가구가 대상이다.

가구당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며 한 번 혜택을 받은 가구에 대해서는 2년간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한국에너지재단(http://www.koref.or.kr)과 전국의 한전 사업소,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재호기자 lion@

세무서 방문 없이 국제 증명 발급

광주국제세정,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광주지방국제세정(정장 한동연)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의 무인민원발급기(광주청내 370여대) 등을 통해 손쉽게 국제 증명도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근로소득자 등 국민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 대표자만 이용)는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 인식으로 국제 증명 13종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국제세정 홈택스(hometax.go.kr), 모바일(휴대폰), 민원24(minwon.go.kr) 등 온라인으로도 국제세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희자 등 온라인 서비스를 이

용하기 어려운 민원인은 '무인민원발급기'나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국제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민원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은행 등 증명수요처에서 직접 국제증명을 조회하고 출력 가능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광주지방국제세정에서는 방문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같은 국제세정 이용방법을 확대하고 있다. 시행 초기로, 현재 3개 세무서(북광주, 서광주, 여수)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국제세정 외에 지자체와 행정부 등의 민원증명(66종)을 동시에 발급 받을 수 있다. 최재호기자 lion@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1 11 21 23 34 44 24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1,166,872,634	14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48,619,694	56
3 5개 숫자 일치	1,297,143	2,099
4 4개 숫자 일치	50,000	96,718
5 3개 숫자 일치	5,000	1,556,425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

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타운 신기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5년 이상 불로 가일해도 불이 시트를 타고 먼저 떨어지지 않는 일회용 방수시트

한국방수시트연구소 2009-2014년 6년간 방수성능시험 합격 제품!

실제시공현장 충북 옥천문화원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툴 프로그램에서 간단하게

Step 1. 방수장리
Step 2. 단열방수시트
Step 3. 외벽의아트패션시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장점

-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 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건축 내외장재 패던디자인이 잔 엔디나외의 클라보 디자인!
- 외벽에 못 임하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만 된다고요?
20년을 가는데!!!

특허 제10-0952035호
특허 제10-1097764호
특허 제10-0548189호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010-6603-0405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